"러, 우크라 전쟁 '서방과의 전쟁'으로 프레임 짠다"

WSJ 보도…러 '서방의 희생자'로 묘사, 글로벌 충돌로 번질 수도

전승절 계기, 2차대전과 우크라전 유사성 부각하며 침공 정당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러시아와 서방 간의 국경 전쟁'으로 프레임을 새롭게 짜고 있다고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크렘린궁과 러시아 국영 언론들은 자국을 '서방의 희생자'로 묘사하면서 이번 전쟁이 소규모 국경 전쟁을 넘어 글로벌 충돌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앞서 서방은 이번 전쟁이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야망을 억제할 기회로 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해왔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서방이 궁극적으로는 러시아를 견제하거나 파괴하려는 의도라며 핵공격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보복을 위협해왔다.

최근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가능성에 준비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달 9일 제2차 세계대전 기념일인 전승절을 이용해 2차대전과 우크라이나 전쟁 간의 유사성을 부각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크렘린궁과 러시아 국영 언론들은 최근 몇 주에 걸쳐 러시아는 서방의 피해자라며 러시아 방어의 필요성 등을 꾸준히 언급해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주 "러시아 봉쇄 정책을 추구하는 세력은 너무 크고 독립적인 국가를 원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그들"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다른 나라가 개입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전략적 위협을 조성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보복 공격이 번개같이 빠를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러시아는 이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갖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러시아의 유명 뉴스 앵커, 토크쇼 진행자 등도 우크라이나에서의 손실로 인한 '끔찍한' 결과를 경고하고 있다.

러시아 국영방송 RT의 편집국장 마르가리타 시모냔은 토크쇼에서 "세계 3차 전쟁은 더욱 현실적"이라며 "가장 놀라운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이 핵공격으로 끝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경제적 지원을 러시아에 대한 위협으로 정의하는 푸틴 대통령에게 있어, 5월 9일 전승절은 전쟁에 대한 대중의 결의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회다.

2차대전은 소련인구 약 2700만명이 숨진 엄청난 시련이었다. 사실상 모든 러시아인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푸틴 대통령은 2차대전을 이용해 애국주의를 북돋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해왔다.

그는 지난해 "적은 소비에트 정치 시스템뿐만 아니라 국가로서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 국민들을 몰아내길 원한다"며 단합을 호소했다. 올해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특별 군사작전'이라 부르며 우크라이나 지도부를 나치로 묘사하고 침공을 정당화했다.

국영 언론 역시 자국민들에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부패하고 무능한 지도부 아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일조했다.

러시아의 한 정치학 싱크탱크 책임자 에브게니 민첸코는 러시아인에게 우크라이나인은 '고통받는 대상'으로 인식된다며 "교활한 서방이 우리에게 맞서 싸우도록 강요한 우리의 형제들"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전승절 퍼레이드에 러시아인들은 2차대전에서 희생된 가족 등의 영정을 들고 '불멸의 연대 행진'에 참가한다. 올해 몇몇 도시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숨진 병사들의 사진을 들고 참가해도 된다고 공지했다. 러시아인들에게 2차대전과 우크라이나 전쟁 간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우크라이나전 참전 군인을 모집하는 광고도 곳곳에 등장했다.

시베리아 지역의 튜멘에서 한 지역언론은 시내에 등장한 병사 모집 광고 영상을 내보냈다. 영상은 "여기 일자리가 있다"며 군복 차림의 남자들이 공격용 소총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연합뉴스

전승절 퍼레이드 연습 러시아 군인들이 최근 상트페테르부르크 드보르초바야 광장에서 오는 9일 예정된 제77회 전승절 퍼레이드를 앞두고 예행 연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도시봉쇄 이어지자 반려동물 격리시설 등장

지난달 중순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피아노 교사 량완잉 씨가 코로나19로 격리시설에 입소하자 그가 키우던 푸들 네 마리도 다음날 반려동물 격리센터로 보내졌다.

량씨는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내 푸들들을 먹이고 산책시키는 사진과 영상을 보내줬다"며 "반려견들이 보살핌을 잘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격리하는 동안 정말 마음이 놓였다"고 말했다. 그는 광저우시 바이윈 지구가 주민들의 요청에 반려동물을 위한 격리센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컨테이너로 만든 임시 격리센터는 동물을 100마리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한 번에 최대 62마리가 수용된 바 있다.

이처럼 반려동물 격리시설을 마련한 중국 도시는 선전에 이어 광저우가 두 번째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일 전했다.

앞서 선전시는 주민들의 요청으로 지난 3월에 반려동물 격리센터를 중국에서 처음으로 열었다.

당시 도시 봉쇄로 수백명이 격리시설에 입소하게 되자 사터우 지구의 한 주민이 "반려동물도 생명이 있고 존중돼야 한다"며 당국에 반려동물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띄웠다.

이에 사터우 당국이 루이펑 펫 헬스케어 그룹 등 동물보호 비정부기구(NGO) 3곳과 손잡고 중국 최초 반려동물 격리시설을 마련했다. 주인이 격리시설에 입소하며 남겨진 반려동물들을 자원봉사자들이 데리고 와 무료로 보살피는 시설이다. /연합뉴스

우크라 전쟁에 식용유 대란…유럽서 판매 제한

세계적 곡창인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면서 식용유도 '대란'이 일어났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쟁의 여파가 정치·안보 지형뿐 아니라 당장 일반인의 식탁까지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식용유 부족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이를 사용해 만드는 요리, 외식 가격 상승도 불가피해진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용유 공급난이 빚어지자 영국을 비롯한 각국 유통업계에서는 소비자 인당 구매 개수를 제한하는 고육책까지 내놨다.

해바라기유 80% 이상을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는 영국이 한 예다.

영국 대형 마트 체인인 테스코에서는 고객당 식용유를 최대 3병까지만 살 수 있도록 했고, 또 다른 대형 슈퍼마켓 체인 모리슨스와 웨이트로즈는 최대 2병까지로 제한했다.

NYT는 영국 말고도 스페인이나 그리스, 터키, 벨기에 등 다른 국가 슈퍼마켓에서도 식용유 구매를 제한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상승세였던 식용유 가격은 최대 해바라기유 수출국이었던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침공으로 생산과 수출길이 가로막히자 더 치솟은 상황이다.

우크라이나는 전세계 해바라기유 시장점유율이 절반가량에 달한다.

여기에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내수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팜유 원유와 파생상품의 수출을 금지하면서 식용유 대란이 심화했다. /연합뉴스

원인불명 아동 급성간염 의심 사례 亞서도 속출

인니 3명 사망 등 긴장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확산 중인 원인불명의 아동 급성간염 의심 사례가 아시아에서도 잇따라 나오고 있어 보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2일 인도네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시티 나디아 타미지 질병예방통제 국장은 전날 성명을 통해 자카르타의 '칩토망운쿠수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급성간염 어린이 환자 3명이 최근 2주 사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어린이는 동부자바와 서부자바의 병원에서 자카르타의 병원으로 앞서 이송됐으며 메스꺼움과 구토, 심한 설사, 발열, 황달, 발작,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달 15일 원인불명의 아동 급성간염 사례를 보고한 이후 경각심을 높였으나, 어린이 3명이 사망함에 따라 경계수위를 더 높인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보건부에도 최근 원인불명 아동 급성간염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

보건부는 지난달 29일 생후 10개월 된 남자 영아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간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 아이는 추가로 검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는 안정된 상태로 알려졌다. 보건부는 남자아이 사례가 최근 WHO에 의해 보고된 아동 급성간염과 유사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중국 건물붕괴 현장 구조활동 중국 후난성 창사에서 주상복합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째인 1일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우며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증축·구조변경을 거친 이 8층짜리 건물은 지난달 29일 무너졌으며 사흘간 7명이 구조됐으나 50여 명은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